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 (엡2:4)

◎ 생활지침 ◎

1.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오늘은 '97 맥추감사절

성찬식과 감사찬양 등 행사

오늘은 '97 맥추감사절이다.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출 23: 14-19)에 따라 이 날을 기억하며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은혜 배부심을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바른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날로 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늘 I·II·III부 예배를 감사예배로 드리며 성찬식을 거행한다. 또 각 교회 학교에서는 집회시간에 맥추감사절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저녁 찬양예배 시에는 타아·유치·유년·초등부 어린이들의 감사

찬양순서도 마련돼 있다.

한편 오늘은 1997년도 하반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주일이다. 남은 6개월도 알찬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신년 초 하나님 앞에서 계획했던 일들을 잘 이루어왔는지도 돌아보아야겠다.

7월엔 각 교회학교의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농촌봉사활동 등 다양한 여름행사가 계획돼 있다. 충만한 영적 재충전의 시간과 봉사활동 등을 통해 온 성도가 한걸음 더 성숙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온 성도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새 예배당 건축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눈에 보이는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더 깊은 기도와 더 많은 헌신이 요구되는 때이다.

7월 교회 행사 게시판

일자	행사
6일	맥추감사절 (성찬식·감사찬양예배)
13일	농촌전도단원 신청 마감
17일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21-22일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27일	농촌봉사단 파송식 새가족환영회 장학금 신청 마감
28-30일	중등부 여름수련회
29-8월 1일	농촌전도단 활동

목사님도 평상시 제복 입는다

예배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목사님들이 제복을 착용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교회발전위원회(위원장 이종윤목사)는 목사 평상복을 제정키로 하고 10일 오후 7시 종로5가 소재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 대강당에서 목사제복연구발표회를 갖는다.

이번 발표회에서 선회는 제복은 모두 18종으로 목사 평상복의 이미지는 유지하면서 교회절기와 사계절을 반영하도록 디자인됐다고 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이들 제복은 자켓과 셔츠의 경우 상단깃을 라운드 처리하여 경건성을 표현했고 자수기법으로 기독교의 상징을 나타낸 것이 디자인포인트.

특히 이 발표회는 우리교회 안정옥 집사(동해기획 대표)가 주관, 패션쇼형식으로 진행하며 한기총 산하 각 교단에서 파송된 목사들이 직접 모델로 나선다.



제복선정은 발표회가 끝난 후 위원장과 목회자, 신학자, 복식관계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위원장을 맡은 이종윤목사는 한국교회에 목사제복의 등장에 대해 "지나가 버린 제사제도의 유물인 제사장의 의복을 다시 끄집어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과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에 반하는 중세교회식의 형식주의를 들어 일부에서는 목사제복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그러나 "한편 목사의 신앙과 삶을 표현하는 평상제복은 예배자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에게도 복음을 몸으로 체현하는 교육적 기능도 있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3면 참조>

✧ 순례자 컬럼 ✧

가라지 인생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시던 중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하시면서 잘 때에 원수가 가라지를 곡식 가운데 덧뿌리고 갔다고 하셨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자라고 있으나 주인은 곡식이 뽑힐까 보아 추수 때까지 함께 있게 두라고 하신다.

누가 가라지 인생인지 마지막 심판 날에야 갈라지겠지만 가라지는 이미 그 열매를 보아 구별되듯 그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중생하지 못한 가라지의 특성은 성령님의 감화와 인도를 거부하고 죄를 짓고 회개할 것을 거절하며 위엣 것보다 이 세상 일에 초점을 맞추어 사는 이들이다.

그러나 가라지는 추수하는 날에 먼저 거두어 불사르도록 묶고 곡식은 창고에 넣게 될 것이다. 가라지 인생이 알곡보다 더 번창한다 해서 부러울 것 없겠으나 혹 내가 가라지가 아닌지 살펴보자.

맥추절 메시지

한국교회의 성도들 중 많은 이들이 기도하는 중에 세계선교, 민족복음화, 제사장 나라, 제 2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와 같은 말들을 하나의 신앙처럼 외치고 있다. '97맥추감사절을 맞이하여 밀·보리 추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나는 우리 민족교회에 이와 같은 환상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크게 감사를 드리고 싶다.

우리가 전녀야 할 강

역사엔 비약이 없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기 전 이같은 일들이 정말 우리 민족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비관적 입장을 취하고 조소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구소련이 무너지고 동구라파가 저렇게 쉽게 붕괴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우리가 그같은 일을 주도한 적도 계획해 본 적도 없었으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던가.

어떤 분이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 당신은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나의 하나님께 기도했노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파사와 로마와 헬라 왕국을 허신 분이 누구신가?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때도, 지금도 역사의 주권을 쥐고 계심을 우리는 믿는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하자.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역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민족이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감사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교회가 그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

첫째로 속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자.

사람을 변화시키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즉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하라 하셨다.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터진 성령 폭탄 위력이 인간을 바꾸고 역사를 변화시킨 최대 혁명사

건이 되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은 민족과 국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변화시켰다. 기도의 능력, 전도폭탄, 사랑의 원자탄, 봉사의 폭탄, 회개의 수소폭탄이 터져야 이 민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세상이 변한다. 맥추감사절은 이와 같은 속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민족교회가 화합하고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계층간 화합이 이루어지고 남과 북, 동과

셋째로 감사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를 끌고 와야 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설날이나 추석을 정한다고 선포하듯 해마다 6월 25일을 민족회개의 날로 선포하고 나라 안의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고 의식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1200만 개의 기도의 불씨가 모아지는 날 지진이 일어나고 성령의 폭탄이 터지고 역사는 바뀌게 될 것이다.

맥추절에 추수감사가 못다 한 충성을 회개케 하는 기도를 촉발시키는 날이 되도록 하자. 그리하여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구원해야 한다.

넷째로 성도마다 경건을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감사하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고 높은 도덕과 윤리를 이제는 실천해야겠다. 의롭지 못한 이는 선거에서 낙선시키거나 사회에서 도태시켜야 하며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기독교인들에 의해 사회도처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세속의 흙탕물을 맑고 시



이종운 목사

맥추감사절은 속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되어야 한다.

또한 감사하는 절기가 하나되는 절기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감사가 못다 한 충성을 회개케 촉발시키는 날이 되도록 하자.

이제는 감사하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고 높은 도덕과 윤리를 이제는 실천해야겠다.

서가 일치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분단의 상징인 38선이 우리 마음 속에도, 교회에도 있다.

한국교회가 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단 한 번만이라도 함께 할 수 있다면 남북통일은 기적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감사하는 절기가 하나되는 절기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족통일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하나되어 복음을 전하면 형제 구원은 물론 세계선교의 대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원하게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시켜야 한다.

다섯째로 감사를 더 많이 해야 한다.

보릿고개시절을 연모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도 그때는 보리 추수를 하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했던가? 풍요와 번영이 감사를 더하게 한 것이 아니라 축소시켰다면 그것은 큰 죄악이다. 맥추절에 감사할 것을 하나 하나 헤아려 보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과분할 뿐만 아니라 나를 후대 하셨음을 알고 더 큰 감사를 드리도록 하자.

목사 평상복 제정에 붙여

한국교회 목사제복 왜 필요한가?

이종운 목사

하나님께서서는 구약시대 제사장들의 예복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하셨다(출 28:2). 그리고 성전의 물품들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겼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약의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새로운 양태로 바뀌었다. 예수를 재관하던 대제사장이 구약의 법에서 금지된(레 21:10) ‘제사장의 옷을 찢었던’(마26:65) 것은 제사장직은 이미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음을 스스로 말해준 것이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제사직은 끝났음을 선언한 것이다.

오늘날 목사제복 문제의 신학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이와 같이 지나가 버린 제사제도를 왜 회복시켜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려 하는가를 묻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세로마 카톨릭교회로 회귀하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에도 위배되며 제복을 입는 형식에 빠지는 것은 개혁주의 신앙전통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현대인의 자유물결이 교회 내에도 가득 넘쳐있는 터에 굳이 교회 안에서만 규격품을 만들어 개성이 없고 제도화로 생명력을 소진케하는 우를 범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작은 것을 얻기 위해 더 큰 것을 잃는 경우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예배시 입는 가운이나 목사의 제복이 없다면 부속한 예배나 경건성이 결여된 목사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목사의 예복과 교회의 화려한 장식이 예배의 기본 정신을 흐리게 하고 성도들을 혼란으로 끌고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별로 중요치 않은 것(a-diafora)은 버리라 했다. 그리고 목사제복 무용론자들의 주장대로 오늘의 시대정신에도 역행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교회발전위원회가 오늘 목사제복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를 발표하게 된 데는 그럴만한 신학적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요청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예배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면 가장 쉽게 그 대답에 접근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the most important), 가장 긴급한 것(the most urgent)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the most beautiful)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배가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위엄과 아름다움과 단정함과 질서를 갖고 최고의 경배를 드러야 하며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치의 소홀함이나 값싸게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서 그들 자신을 정장으로 차려입는 것은 다른 이들의 시선을 의식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집에 오는 신앙을 가진 이들의 자연적 반응이며 거기에는 어떤 다른 이유도 없을 것이다. 가시적 아름다움이 지나친 사치나 경쟁심을 유발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의 표현이라면 오히려 권장해야 할 것이다.

교회당을 지을 때 아름답게 또는 상징성을 갖고 건축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용상 편리하고 효용성만을 찾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음식물을 섭취하는 목적이 건강만을 위한 것이라면 굳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 요리를 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차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시적인 것들이 신앙 내용이 아니라 해서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시대를 맞이하여 전달매체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때에 우리의 신앙표현을 귀로 듣고 눈으로 성경책을 읽는 것에 국한시킬 수는 없다. 하나님께 구별된 성직자의 행동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복음 전달의 가시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문화를 정착시킨 서구의 교회들은 예배를 위해 다양한 색깔과 구조물들을 사용해 왔다. 예복의 경우 그 예복이 성직자의 신분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것 뿐 아니라 예배자들로 하여금 예배 자체의 중요성과 엄숙성을 가시적인 것을 통해 인식케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목사의 예복만이 아니라 교회 내부의 장식도 아름답고 거룩하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꾸미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목사의 제복도 예배자뿐 아니라 일반시민에게 복음을 몸으로 체현하는 교육적 기능도 가질 수 있다 할 것이다.

권위주의적 발상이나 거룩한 위선자라는 비난도 있을 수 있으나 그보다 목사 자신의 신분에 맞는 언행을 하나님 앞에서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스스로 규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오늘날 복음증거를 위해 교인의 집에 교회문패를 붙이거나 자동차의 범퍼에 스티커를 붙여 성구나 전도 문을 보이게 하는 것은 복음전도뿐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규제용으로도 좋은 효과를 갖고 있음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다. 또한 성육신적 믿음 즉 가시적 문화를 통해 복음 전달에도 기여할 것이다.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결코 하나의 강의 그 이상일 것이며 부흥회나 전도 강연회 모임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색깔, 몸의 동작 그리고 음악과 같은 표현된 수단들은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케 한다.

이해와 체험 그리고 표현은 해석학의 3가지 열쇠로 알려져 있다. 이해하려면 반드시 체험되고 그것이 표현되어야 하며 체험된 것이어야 이해되고 이해된 것이어야 표현이 되는 것이며 표현된 것은 체험 없이 불가능하며 표현이 바로될 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목사제복은 목사의 신앙과 삶을 표현코자 한 것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현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내부적 문제 가운데 하나는 교회연합 또는 일치の問題이다. 교회 기구를 연합하고 조직을 통한 연합을 시도해 보기도 했고 자기를 닮아야 연합할 수 있는 고집 센 이들의 주장도 들어보았지만 실은 성경이 가르친 연합은 영적 연합이어야 한다. 분열이 없는 하나의 교회는 구호에 그칠 뿐 날이 갈수록 교파의 장벽은 높고 두텁게 쌓여가고 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자칭 사도의 후예라고 일컫는 목사의 일치하는 신학적 신앙적 차이로 더욱 어렵게만 느껴진다. 대 사회적 목소리를 함께 하기는커녕 자기동일성마저 상실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서양의 사업가들의 옷(business - man's suits)을 입고 자기 동일성을 주장하기엔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목회자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다. 비록 비본질적인 것이라 해도 복음 증거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리고 교회 일치의 한 표현으로 우리가 전수 받은 예배형태와 목사복을 우리의 것으로 문화화(inculturate)하고 통일시키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 것이다.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한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est” 즉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은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된 것 같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옷 입었느니라”(갈3:27),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의 심령이 먼저 그리스도께 사로 잡혀야 하며 그가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였던 것”(벤전 2:21)처럼 우리도 믿는 자의 도리를 말로만이 아니라 경건한 행실로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집회실 일부 변경

오늘부터 중등부와 초등부 집회실이 변경된다. 중등부는 202호실에서 403호실로, 초등부는 402호실에서 202호실로 바뀐다. 이번 집회실의 변경은 학생들의 체형을 고려하여 의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집회 시간은 변동 없이 두 부서 모두 주일 오전 9시에 시작한다.

한편 406호실이 신설되어 교사 예배 및 회의실로 활용케 됐다.

'97농촌전도단 파송

전도위원회(위원장 김태기 장로)에서는 '97 농촌전도단을 파송기로 하고 전도단원을 모집한다.

농촌전도단은 7월 29일(화) ~ 8월 1일(금), 3박 4일간 전북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신석교회(김진수 목사)를 중심으로 축호전도, 성경학교 개최, 지역봉사활동 등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된다.

신청 접수는 7월 13일(주일)까지이며 농촌전도단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사무국이나 전도위원회로 하면 된다.

전반기 우수다락방 시상식

교구위원회(위원장 김광신장로)는 97년 전반기 모범다락방을 선정, 오늘 찬양예배 시 시상식을 갖는다.

6개월간 전도를 많이 한 역삼 2다락방(7명)과 반포 6다락방(6명) 그리고 분당 2다락방(6명)에는 전도상이 주어진다. 다락방 모임 참가율이 높았던 수치1·2다락방(98%), 홍마다락방(94%), 군포·수원다락방(92%), 개나리 1다락방(90%), 상계 1다락방(90%)에는 모범상이 수여된다.

그밖에도 어린 아이가 매우 많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상황에 맞게 열심히 예배 드린 논현 1다락방, 남자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모인 분당 1·4다락방, 교회에서 멀고 다락방 간 거리도 많이 떨어졌지만 열심히 모이고 흥해작전 기간 중에는 3시부터 일어나 20일간 결석없이 참가한 안산·시화 다락방은 특별상을 수상하게 된다.

또한 매주 빠짐없이 모임을 가진 다락방에는 열심상이 수여된다. 오늘 열심상을 받는 다락방 논현2·3·4·7·8, 신사, 압구정, 청담, 삼성, 역삼1·3·4·5, 도곡주공, 일원, 서초1·2, 잠원1·2, 반포1·2·4·5, 방배

1·2, 인천, 부천, 구로, 광명, 수유, 우이, 쌍문, 용산 12, 중구, 서대문, 은평, 일산, 고양, 마포, 금곡, 성수, 잠실 3, 문정, 오금, 분당 3 다락방이다.

교회학교 7월부터 새 교재사용

교육위원회(위원장 정병무 장로)에서는 97하반기 교회학교 유치·유년·초등부 교육교재를 파이디온선교회의 사다리공과 "거듭난 생활"로 정했다.

7월부터 제 2학기를 맞는 교회학교에서는 상반기를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새 교재를 사용한 공과공부가 많은 결실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에 택한 교재는 성경에 기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었고 매우 진취적인 내용으로 접근하고 있어 어린이들에게 매우 참신한 교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음악학교 9월 개설

서울교회 음악학교가 9월부터 개설된다.

찬양위원회(위원장 윤봉준 장로)는 서울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음악지식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음악학교를 개설기로 했다.

학제는 1년 2학기(1학기는 15주)로 하고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90분간씩 진행되며 1학기는 3~6월, 2학기는 9~12월이다.

음악학교에서는 성경, 발성, 가창, 음악이론, 독보요령, 호흡법 등을 교육하며 강사는 본교회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중심으로 하되 필요하면 외부인사도 초빙할 계획이다.

참가대상은 찬양대원이나 찬양대원 지원자 뿐만 아니라 연령이나 인원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는 이연숙 집사(가브리엘 찬양대원)에게 하면 된다.

◇ 전북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신석교회

전도단이 파송될 전북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에는 현재 120가구 300여 주민이 살고 있다. 신석교회는 1974년 10월에 7명이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였다.

보통의 농촌교회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는 대부분 노인과 부녀자이고 젊은 이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신석교회에는 현재 장년 35명, 중고등학생이 8명, 어린이 10명이 출석한다. 지역적 특성상 원불교의 포교활동이 활발하지만 그 지역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득 채우려 하는 것이 신석교회의 기도제목이다.

지도 교역자는 김진수 목사로 가족으로는 사모와 2남(22세, 20세)이 있다.

신석교회는 우리 교회 농어촌 100교회 지원운동의 대상교회로 루디아 제 1전도회와 자매결연한 교회이다.

동정

* 이종윤목사는 10일(목) 우리교회당에서 총회주재 위원회를 개최한다.

* 이번 주 봉사자를 위한 점심식사는 정동호·김정임집사 가정에서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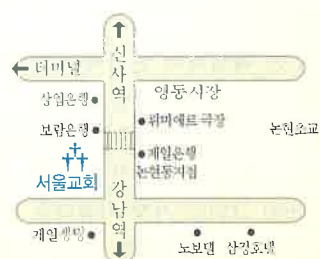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감사하며 기도에 더욱 힘쓰는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2. 각 부서 여름행사 준비가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3.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